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0월 7일(목)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환경기후 정 책 과	담 당 자	• 기후대응팀장 이태호 ☎440-8591 • 담당자 노금호 ☎440-859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b>16: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 인천시 군수·구청장 ‘COP28’ 인천유치 위해 뭉쳤다.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인천 유치지지 선언 -
- 유치위해 기후행동 실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 동참 등 모든 노력 다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 10개 군수·구청장이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0월 7일 유치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고남석 연수구청장의 지지선언문 낭독, 군수·구청장 유치지지 서명,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으며, 지지선언은 10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인천유치의 한마음, 한뜻의 열망이다.

군수·구청장은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최종 채택(제48차 IPCC, 2018.10)한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한다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임을 확인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공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 동참, 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 할 것을 선언했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 인천은 GCF를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를 품고 있으며, 제48차 IPCC총회, GCF 이사회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인천국제공항, 컨벤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춘 총회 개최 최적지로 인천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197개 당사국이 1995년부터 매년 연말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다.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는 대륙별 순환 원칙에 따라 개최된다. 지난해 영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COP26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전체 일정이 미뤄져 아시아·태평양권 총회는 2023년 11월 2주간 열릴 예정이다.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3만여 명이 참석하게 될 COP28를 유치할 경우 총 1천6백억 원의 경제효과와 1천여 명 고용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1. 선언문

2. COP28 인천유치 추진개요

※ 관련 사진은 행사(16:30)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1

## 선언문

###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 인천유치 지지선언문

인천시 10개 군수·구청장은 2023년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탄소중립도시 인천에서 개최되기를 적극 지지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당장의 시급한 현안이며 구체적인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지구의 온도를 1.5℃ 이하로 낮추는 노력에 합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 10개 군수·구청장은 2050년 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이며, 전 세계의 기후변화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최종 채택한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한다면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7개국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국내에서는 인천시만이 탄소배출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인천은 GCF를 비롯한 15개 국제기구 소재의 글로벌 중심 도시이며, 최근 제48차 IPCC총회, GCF 이사회, 2019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인천국제공항, 컨벤션시설, 1만여개의 객실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총회 개최 최적지이다.


이에 우리 10개 군수·구청장은 인천시의 총회 유지를 위해 선도적인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총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협력 할 것을 약속한다.


2021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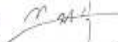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구청장 홍 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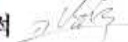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동구


구청장 허 인 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 김 정 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고 남 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장 이 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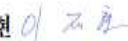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청장 차 준 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청장 박 형 우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이 재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수 유 천 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수 장 정 민 

## 참고2 COP28 인천유치 추진개요

-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고의 국제회의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개최도시, 인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도약, 위상확보, 인천의 브랜드 가치 상승  
👁️ **경제효과 총 1,611억원 이상 예상, 고용유발 1,000여명 창출**

### □ COP28 개요

- 행사명: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 기간: 2023년 11. 2주간,
- 주최/주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개최국가
- 참가규모: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여명
- 주요 프로그램(안): 당사국총회, 부속기구 회의, 고위급 회의, 기자 회견, 부대행사, 전시 등
- COP28 개최지 추진일정
  - 2021.11월 : 개최국 확정(COP26, 영국 글래스고)※경쟁국가:UAE
  - 2022.상반기 : 국내 개최 확정시 개최도시 확정 ※경쟁도시:여수,제주,부산,고양

### □ 유치 필요성

- COP28 개최도시 인천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및 기후변화 선도도시 홍보 및 위상제고, 브랜드 가치 상승
  - 총 1,611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고용유발 1,000여명 창출 등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홍보 및 발전역량 강화, 국제사회 신뢰확보를 통해 인천의 역할 및 위상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

####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기후변화협약)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국제협약

####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 총회)

-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1995년부터 매년 개최)
- 사무국 : 독일 본, 197개국 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등 2~3만여명 참가